

남성 당뇨인의 고민

50대 중반인 회사원 김 모 씨는 10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요즘 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아내와의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어느 날부터가 발기가 잘 되지 않더니 어렵사리 발기가 되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그러기를 몇 번, 이제는 아내 볼 면목도 서지 않는다. 어딘가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게 이만 저만이 아니다. 몇날 며칠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용기를 내 비뇨기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찾은 김 씨는 발기부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기본적인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남성호르몬 검사와 시정각 발기유발검사, 복합 초음파 검사 등이 실시되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음경의 신경과 말초 혈관에 이상이 생긴 것이 발견됐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식사조절이나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지 못해 혈당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위 김 씨의 사례처럼 당뇨병으로 인해 발기부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역시도 많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발기부전환자의 40%가 당뇨병환자이며, 당뇨병환자의 절반 정도가 발기부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에 의한 발기부전의 심각

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당뇨병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보다 10~15년 정도 일찍 발기부전이 발생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 겪게 된다. 발기부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처음 당뇨병을 발견하는 케이스도 있다.

당뇨병이 있으면 왜 발기부전이 잘 생기는 것일까?

모든 당뇨병환자가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조절이 불량할수록 발기부전이 잘 생긴다. 혈당 관리를 엉망으로 할 경우 고혈당에 자주 시달리다보면 남성의 음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과 혈관에도 이상이 발생한다.

음경에는 음경해면체라는 발기조직이 있는데, 발기가 되면 이 구조물에 혈액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면서 음경이 단단해진다. 발기부전은 음경해면체 내에 피가 적절히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나 질병이 발생하면서 발생한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성기능장애는 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발기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당뇨로 인해 남성 성기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기에 필요한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경해면체가 탄력성을 잃고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팽창도 되지 않고 들어온 피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둘 힘도 없어서 강직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발기가 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발기부전이 될 수 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발기를 유발하는 자극에 둔감해지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발기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육체적인 요인 외에도 정신적인 요소가 더해져 발기부전증이 발생한다.

당뇨합병증에 의해 성기능장애를 몇 번 겪다보면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져 발기기능

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신질환, 고지혈증, 신부전, 남성 호르몬과 같은 내분비계 이상,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 등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 만약 신경안정제, 정신과 약제, 위염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발기력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약제를 변경하거나 다른 치료법으로 바꿔야 한다.


치료 및 예방법

발기부전으로 진단받으면 심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나 경미한 정도의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다면 비아그라로 알려져 있는 발기유발제 등의 약물을 이용해 일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약물을 통해 약 60% 정도의 환자에서 이전의 성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불명확한 비아그라 등의 약물을 구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약물로서 치료가 어렵다면 음경 진공흡입기나 발기 유발 주사를 이용해 발기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술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음경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발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기부전이 매우 심한 사람에게도 치료가 가능하다.

발기부전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드러내놓고 치료할 수 없고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망설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발기부전증 역시 조기에 치료받으면 효과가 크다.

이에 앞서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혈당조절과 발기부전증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흡연을 삼가고 비만 특히 허리둘레를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줄여야 한다. 

글 / 김민경 기자